

## 신년사

# 새해를 맞이하여 화협 가족과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무사히 보내고 뜻깊은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제가 화협에 부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막중한 공익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새해의 길목에 서서 지난 일을 뒤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못했던 것만 생각됩니다.

지난 해에 겪었던 각종 사건·사고들을 생각할 때 방재전문기관인 저희 화보협회로서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협회는 사건·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착안, 많은 투자가 요구되지만 국내의 안전 관리 총서로 활용이 기대되는 미국 방화 협회의 '화재안전기준(NFC)'을 국문판으로 완역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방재기술 실무교육을 통하여 관련 종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과 기술·정보를 익혀 재난에 대비하도록 저희 능력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활동에서 터득한 방재 기술의 노하우와 화재 사건마다 분석한 데이터를 화재 예방 자료로 활용되도록 각종 책자를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세계는 금년 들어 개발도상국의 기술 후진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술 패권주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기술 카르텔을 형성하여 기술 후진국을 따돌리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지난해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로 부터 인정서를 취득하여 우리의 방재기술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금년부터 예상되는 선진국의 정보·기술시장 독점에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재분야는 각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설비라는 것이 항상 사용되는 설비가 아니고 비상시에 한번 사용하기 위한 설비인 까닭에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투자의 외면과 설비에 대한 무관심의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의 대부분이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인재에 해당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방재전문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위험을 양적으로 해결하려는 비전문가와 질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차이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을 비롯한 위험진단·우량물건 할인·FILK 인증품목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특수건물 소유주와 대형 산업체에 제공될 협회의 기술업무는 방재전문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은 저희 협회 직원들의 기술 향상과 전문능력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개발에 총 매진할 예정입니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재해 위험에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元旦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정 왕 선